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선교편지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선교편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매월 선교보고로 귀하신 선교동역자님들을 찾아뵙기를 다짐해봅니다.

지금 필리핀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학교 학사일정이 변경되면서 가장 더운 기간에 학교에 다녀야합니다. 한 교실에 60-70명이 수업하는데 선풍기 2대가 전부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방학이나 방학을 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다, 모듈 수업이다는 이름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지만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그냥 방학일 뿐입니다. 마닐라의 역대 최고 기온 뉴스, 체감온도 54도 뉴스, 고온으로 인한 변압기 파손, 대규모 정전, 물부족으로 단수 등의 뉴스로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경암송을 계속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의 성경 암송은 로마서 1:13-17, 로마서 3:39-18, 로마서 5:3-8, 고린도전서 4:18-21이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읽다보니 암송이 되는 것이지, 암송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교사보다 영어를 더 빠르게 읽고 빠르게 암송합니다. 함께 영어성경을 읽으면 선교사의 실수 때문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됩니다. 4개월 전부터는 특별히 7학년 8학년 (중1,2학년)반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영어 실력의 차이 때문에 나이별로 구별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7,8학년 반에게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영어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소중한입니다.

여수 예뵌, 세중한빛 교회 단기선교



여수 예담교회와 세종한빛 교회가 선교지를 방문하여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꿈은 이뤄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받고, 저희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단기선교팀원들에게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보다 더 많은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을 따라가려다가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단기선교팀의 방문을 통해 마길링(Makiling)의 아이들은 꿈을 되새겼고, 선교사는 열정을 되살렸습니다.

한국 방문을 꿈꿉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6명의 필리핀 아이들과 한국을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다녀와보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힘을 갖게합니다. 6월말까지 30개의 성경암송을 완벽하게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7-8학년 중에서 한명, 나머지 9-12학년(중3-고3) 중에서 5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6월말에 아이들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의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됩니다.

아이들과의 식사

아이들에게 매일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자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밥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7학년 8학년 아이들과는 매주 수요일 성경을 읽고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성경읽기 뿐만 아니라 무조건 핑계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식사를 합니다. 하루 한끼를 먹고 학교에 다닌다는 9학년(중3) 아이의 말이 마음을 찢렸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한국 손님이 있으면 그 핑계로 밥을 먹고, 어디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으면 그것으로 밥을 먹고, 제가 3-4일 휴가를 다녀오느라 교회를 비우면 밥을 먹고, 성경암송을 잘하면 잘 했다고 칭찬하면서 밥먹고, 성경암송을 못하면 격려하는 차원에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교회에 붙들어놓았던 것이 뜨겁게 기도하던 부흥회였는지, 전도사님의 집에서 함께 먹던 라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밥을 사줍니다.



밥 많이 먹은 사람 =
성경 많이 읽고
암송 많이 한 사람



어린이 성경암송반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성경암송반을 몇 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현재는 4명의 5,6학년 아이들이 7,8학년에 섞여서 함께 성경암송을 합니다. 6월 1일이면 필리핀 학교들이 방학합니다. 그 방학에 맞춰서 5,6학년 영어성경암송반을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십시오.

JTOR 창립기념예배

교회 창립기념 예배에 초대하지 말라고 해도 매해 초대를 받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더 많이 찾아가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은 성도들이지만, 후임 목회자를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마길링 씨앗들의 꿈 교회 아이들과 함께 JTOR교회 창립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씨앗들의 꿈 아이들은 교회를 한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건축기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되새겨봅니다.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 위해 모든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데,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를 추돌했고, 그 여파로 제가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16년된 차를 수리하는데 300만원이 넘게 들어가기에 결국 차량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중고상이 차를 매입하겠다고 나서서 차를 넘기고 한달을 필리핀 태양과 정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성도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처음 해보는 찬양 콘서트

기도제목

1. 마깔링에 예배 처소 건축을 위해(Dream of Seeds Church, 씨앗들의 꿈 교회)

교회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데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 부족으로 어른들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급히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교회가 서있어야 몰몬교, 여호와증인,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 등의 이단들의 활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부지 : 300M² 이상 (약 100평)

☑ 층수 : 2층

☑ 본당 및 교육부서 공간

☑ 아이들의 합숙을 위한 숙소

교회 건축이 시급하고 중요하기에, 건축 이외의 모든 기도제목들은 삭제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이 기도해주십시오.

2024년 4월 29일

필리핀 라구나 팔람바 마깔링(Makiling)에서

김상철/안경영 선교사 인사드립니다.